

##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

### -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나 태 준\*\*

내용분석은 방대한 낱개의 기록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분석하는 과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질적 자료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성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분석방안으로서 복수 자료원을 사용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언론 보도내용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의 정성적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로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우선, 신문보도자료와 방송보도자료, 인터넷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자료의 활용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우호도상의 변화를 통계치로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내용분석방법이 가지는 객관성과 중립성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우호도의 체계적 판별을 위해 단어와 문맥(문장)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우호도의 척도를 단순화시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보완을 통한다면 내용분석방법은 사회과학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내용분석, 청계천 복원사업, 복수자료원

\*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I. 서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신문, 잡지, 편지, 전자메일 등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연구과정으로서(Babbie, 2001: 304-305), 방대한 날개의 기록들을 의미있는 정보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분석하는 과정을 뜻한다. 내용분석의 절차를 걸친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적 자료화하는데 그 의의를 두는 것이다(Berelson, 1952: 18; Singleton, Jr., Straits; and Straits, 1993: 381). 그러나, 일견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분석방법은 질적 자료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성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Krippendorff, 2004; Lombard et al., 2002; Miles & Huberman, 1994).

나태준(2003)의 연구는 내용분석방법론에 입각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일간지와 주간지에 게재된 청계천에 관한 기사와 사설, 기고 등의 내용을 해부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는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분석방법론의 정성적 연구의 한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언론보도내용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와 기본적인 분석틀을 공유하면서도 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즉, 기존의 내용분석 방법론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정성적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분석방안으로 어떠한 시도가 있을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보도에 나타난 정부정책, 즉, 청계천 복원사업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효과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내용분석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채택하여 다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호도 판별에 있어서 어군을 정리하여 기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내용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단일자료 분석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방송내용(TV와 라디오)을 포함하여 신문과 방송간의 우호도 비교를 통해 분석의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인터넷 내용분석과 방송보도의 심층분석의 포함 등을 통한 보완 등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서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문과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보도된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보도의 빈도와 우호도에 변화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

고, 관련 보도자료들을 14개 분야의 주제로 분류한 후, 자료분석을 위해 Excel과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신문과 방송의 보도 빈도 및 우호도 비교, 그리고 심층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적어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 II. 선행연구 검토

내용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적 절차는 연구문제의 정립, 표본의 추출, 범주(categories)의 구성, 측정단위 및 계량화방안의 설정, 부호화 및 신뢰도 검정, 분석의 수행 및 분석결과의 해석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Krippendorff, 1980; Weber, 1985; Singleton, Jr., Straits, and Straits, 1993: 381-387; 주재현, 2002). 정치적 선전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내용분석은 1930년대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뿐 아니라, 정치, 역사, 교육, 언어 등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그 적용분야가 확대되었다. 그 형태에 있어서도 설문, 인터뷰, 영화/TV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는 만화, 사진 등 문자화되기 어려운 자료까지도 내용분석 기법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Robson, 1993: 273-274; 이지훈, 1993: 436-437).

내용분석방법은 특히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의 관련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TV방송의 내용분석을 수행한 한국언론학회(2004)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시사교양정보, 뉴스주제분석, 프레임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프레임 분석에서는 보도대상의 이미지를 프레임을 통해 드러내기 위하여 보도의 행위자와 쟁점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정치사건에 있어 행위자간의 이해관계나 갈등 등을 표현하고, 각 쟁점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Coffey(2005)의 연구는 주지사의 정치적 성향과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있어서 주지사의 연두교서(state of the state gubernatorial speeches)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즉, 연설을 통해 나타난 50개 주 주지사의 성향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중 어느쪽을 강조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는 변모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Dowler(2004)는 범죄에 관한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고자,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관련방송(Television Crime Stories)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보도되는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단지 미국에 있어서 보다 자극적인 방송, 생방송, 무기를 사용한 범죄와 관련된 방송이 미국에서 더 많은 전파를 타는 것으로 밝혀졌다.

Monk-Turner 외의 연구(2004)의 경우에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12편의 미국 전쟁영화 흥행작에서 나타난 폭력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폭력의 실행도구(손, 칼, 폭탄 등), 폭력장면의 길이, 유혈장면, 일반인(noncombatants: 여성, 어린이, 일반인, 동물)에 대한 폭력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에 발표된 작품, 특히 1990년 이후의 영화들이 더 폭력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이나 정책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숫자에 머물고 있다. 정익재와 정창무(1996)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발생한 재난의 유형과 관리를 연구함에 있어 신문사설을 내용 분석하였다. 즉, 재난의 발생경향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관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근거로 내용분석을 사용한 것이다. 이상경(2001)의 연구 역시 신문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신문보도 내용 중 재건축 관련 갈등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지만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몇가지 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어 학문적 의미는 크지 않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 성격을 띤 이상경·신우진·정창무(2001)의 연구는 「재건축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 관련 주체들간의 실제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총526개의 재건축 관련 갈등기사를 추출하였고 이를 22개의 갈등분야로 유형화하여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였다.

김춘식(1998)은 한·미·일 정치광고를 비교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치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특성, 문화적 특성, 시장·제도적 특성 등 3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국, 미국, 일본에 있었던 선거시 주요신문에 게재된 정치광고의 내용과 조응하여 각국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Joo(1997)는 한국 국가엘리트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을 추진한 근본동기가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박정희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경우 모두 주어진 연구목적에 따라 내용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준호·김태식(1993)의 경우에는 내용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후에 연구목적에 세웠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별된다. 이들은 정치학 방법론으로서 내용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대통령 취임연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치적 관심사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들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한 연구의 부재, 그리고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수작업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면서 부호화작업을 통한 5개 범주의 빈도와 추이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

주재현(2002)의 논문은 내용분석의 수행절차를 정리하고, 정책학 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내용분석방법 적용상의 주의점과 시사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내용분석의 장점으로 i)측정내용이 측정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ii)자료가 영구적인 형태를 유지하므로 반복적 측정이 가능하고, iii)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i)사용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수 있고, ii)생산된 자료가 체계적인 편견을 지니거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며, iii)내용분석결과로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문제의 성격이 내용분석을 필요로 해야 하고, 둘째, 자료의 성격이 내용분석을 행하기에 적절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내용분석이 주된 연구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에 나타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일반사회의 반응을 분석해본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8개월간 체계적으로 보도된 신문 및 방송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재현이 제시한 연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이 주된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그 내용을 심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나태준(2003)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신문보도상의 언론보도의 우호도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용분석에 있어서의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이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사의 우호도 판별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분석대상 언론매체에 방송이 제외되고 신문에 편향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복원사업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서 언론동향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내용분석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2003년 7월1일 착공을 전후한 2003년 5월1주부터 12월4주까지이며 신문과 방송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문보도자료로는 한국언론재단의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인 [www.kinds.or.kr](http://www.kinds.or.kr)과 각 일간지의 홈페이지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표적 일간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석간발행인 문화일보의 청계천 관련 보도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방송보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방송보도자료로는 서울시 언론담당관실에서 매일 스크랩하고 있는 방송보도 및 청취자료를 전수조사하였다. 그 대상으로 TV부문의 KBS1, KBS2, MBC, MBN, SBS, YTN과, 라디오부문의 BBS, CBS, KBS1, KBS2, MBC, PBC, SBS, TBS를 포함하였다. 신문보도는 검색어의 기준을 “청계천”으로 하여 전체 기사들을 검색한 뒤 청계천 복원사업이 핵심내용인 경우만 범위에 포함시켰고, 방송보도자료의 경우에도 비록 청계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도라 할지라도 청계천 복원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의 수는 신문보도 668개, 방송보도 1,368개에 이른다.

### Ⅲ.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의 비교분석

#### 1. 빈도분석

##### 1) 월별 빈도

2003년 5월에서 12월까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기사·기고·논단·사설·시론 등)는 총 668회로, 이는 하나의 신문이 8개월(245일) 동안 이틀에 한 번 꼴(0.455/일) 혹은 한달에 14회 정도 청계천 관련보도를 한 셈이다. 하나의 보도가 복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의 기사에서 교통대책과 상인대책, 역사와 문화 등의 주제 혹은 범주(이하 범주로 통칭)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경우로서, 각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평균 범주수는 1.24개이다. 월별 보도빈도에 있어서는 착공일(7월1일)을 전후한 6월과 7월에 신문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착공일이 지난 8월부터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11월에는 최저치를 보였다.

〈표 1〉 월별 신문보도 빈도

| 시 기 | 동 아 | 문 화 | 조 선 | 중 앙 | 한겨레 | 한 국 | 계   |
|-----|-----|-----|-----|-----|-----|-----|-----|
| 5월  | 17  | 15  | 16  | 18  | 18  | 14  | 98  |
| 6월  | 24  | 28  | 24  | 25  | 35  | 24  | 160 |
| 7월  | 24  | 32  | 21  | 45  | 35  | 27  | 184 |
| 8월  | 13  | 10  | 13  | 20  | 14  | 10  | 80  |
| 9월  | 7   | 10  | 4   | 8   | 14  | 7   | 50  |
| 10월 | 7   | 5   | 8   | -   | 7   | 5   | 32  |
| 11월 | 1   | 2   | 4   | 3   | 8   | 2   | 20  |
| 12월 | 7   | 3   | 10  | 4   | 12  | 8   | 44  |
| 계   | 100 | 105 | 100 | 123 | 143 | 97  | 668 |

방송보도 분야의 빈도분석 결과는 TV는 총 436회로 매체당 한달 평균 9회, 라디오는 총 932회로 매체당 한달 평균 14.6회 보도되었다. 이를 TV와 라디오를 통합한 총 보도횟수로 보자면 1,368회로 한 매체당 한달에 12번 정도의 빈도로 보도한 셈이 된다. 방송에 있어서의 평균 범주수는 1.18개로 방송에서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도에서 하나의 범주 이

상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착공일 전후인 6월과 7월에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도 신문과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신문보도와 구분되는 점은 방송보도에서는 신문에 비해 증감폭이 크다는 것으로, 5월에서 6월로 보도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7월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방송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흥미의 범위(time span of interest)가 신문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월별 방송보도 빈도

| 시기  | TV   |      |     |     |     |     |     | Radio |     |      |      |     |     |     |     |     | 계     |
|-----|------|------|-----|-----|-----|-----|-----|-------|-----|------|------|-----|-----|-----|-----|-----|-------|
|     | KBS1 | KBS2 | MBC | MBN | SBS | YTN | 소계  | BBS   | CBS | KBS1 | KBS2 | MBC | PBC | SBS | TBS | 소계  |       |
| 5월  | 15   | 3    | 11  | 1   | 2   | 15  | 47  | 28    | 2   | 3    | -    | 2   | 3   | -   | 16  | 54  | 101   |
| 6월  | 26   | 2    | 23  | 10  | 18  | 49  | 128 | 39    | 18  | 33   | 1    | 11  | 4   | 2   | 287 | 395 | 523   |
| 7월  | 22   | 5    | 37  | 15  | 24  | 24  | 127 | 28    | 16  | 24   | 1    | 18  | 5   | 8   | 181 | 281 | 408   |
| 8월  | 14   | 5    | 17  | 2   | 10  | 10  | 58  | 18    | 11  | 18   | -    | 12  | 10  | 3   | 29  | 101 | 159   |
| 9월  | 3    | -    | 1   | 2   | -   | 1   | 7   | 9     | 1   | 5    | -    | 1   | -   | -   | 8   | 24  | 31    |
| 10월 | 2    | 1    | 3   | 2   | 3   | 3   | 14  | 5     | 2   | 2    | -    | 2   | 1   | -   | 9   | 21  | 35    |
| 11월 | 4    | 3    | 8   | 2   | 7   | 10  | 34  | 6     | 6   | 5    | -    | 3   | 1   | 3   | 11  | 35  | 69    |
| 12월 | 3    | 2    | 6   | -   | 3   | 7   | 21  | 3     | -   | 5    | -    | 1   | -   | 3   | 9   | 21  | 42    |
| 계   | 89   | 21   | 106 | 33  | 67  | 119 | 435 | 136   | 56  | 95   | 2    | 50  | 24  | 19  | 550 | 932 | 1,368 |

## 2) 범주별 빈도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보도의 분석대상은 소진적(exhaustive)이어야 한다(주재현, 2002). 본 연구의 단순빈도분석에 있어서는 내용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방법인 Word counting 기법을 따라(Krippendorff, 1980; Weber, 1985), 청계천 관련 보도를 단어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나온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범주를 구성하였다. 각 범주의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표 3〉 범주별 키워드와 보도빈도

단위: 회(%)

| 범주  | 키워드                                           | 신문보도       | 방송보도       |
|-----|-----------------------------------------------|------------|------------|
| 경제  | 국제금융단지, 관광특구, 비용편익분석, 패션광장, 외자유치, 건설주         | 14 (1.7)   | 13 (0.8)   |
| 공정  | 기공, 착공, 완공, 공사, 철거, 일정, 안전                    | 99 (12.0)  | 365 (22.6) |
| 교통  | 교통대책, 교통체증, 일방통행, 교통량, 북개도로                   | 248 (30.0) | 659 (40.8) |
| 문화  | 청계천문화관, 헌책방, 예술, 전시, 디자인, 기념품                 | 53 (6.4)   | 43 (2.7)   |
| 보상  | 보상대책                                          | 2 (0.2)    | 8 (0.5)    |
| 상인  | 상권보호, 청계천상인대책위원회, 인근상인, 노점상, 대체지, 영업권         | 97 (11.7)  | 215 (13.3) |
| 시민  | 인근시민, 시민광장, 주민협의기구(체)                         | 44 (5.3)   | 32 (2.0)   |
| 역사  | 역사도시, 교량공모, 문화관광벨트, 도보관광코스, 교량복원, 수표교, 광고     | 115 (13.9) | 77 (4.8)   |
| 재개발 | 강북발전, 민간유도, 지구단위계획                            | 40 (4.8)   | 54 (3.3)   |
| 재원  | 재원마련, 재정, 추경예산                                | 1 (0.1)    | 7 (0.4)    |
| 정치  | 시의회, 헌정사무소, 사이버투어, 홍보관, 선거, 이명박               | 8 (1.0)    | 17 (1.1)   |
| 학술  | 연구, 하버드대, 강의                                  | 17 (2.1)   | 17 (1.1)   |
| 환경  | 하천복원, 지하가스, 맑은 물, 인공연못, 유지용수, 한강, 소음, 조경, 폐기물 | 78 (9.4)   | 96 (5.9)   |
| 기타  | 유년시절, 청계거리, 추억                                | 10 (1.2)   | 12 (0.7)   |

주: 하나의 보도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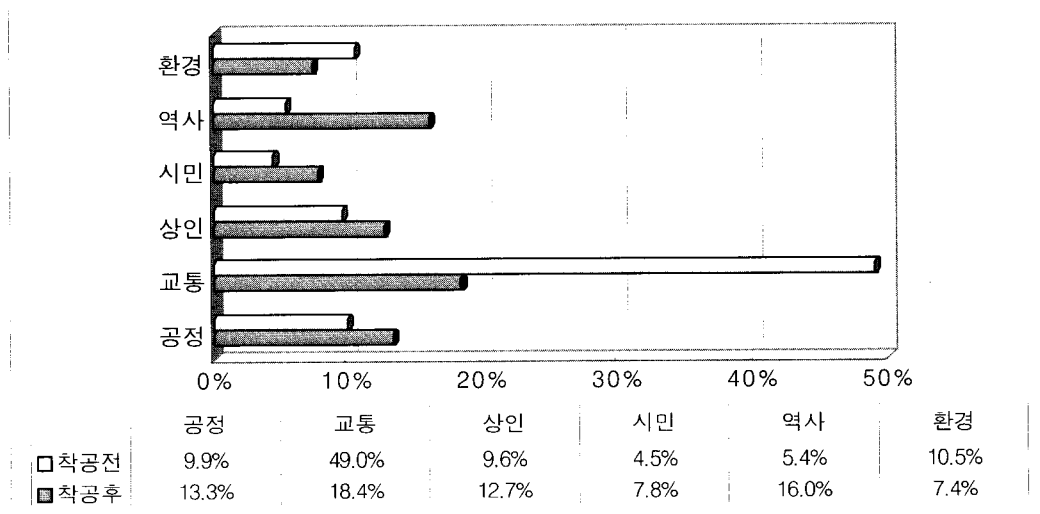
신문보도에서의 범주별 빈도는 교통 분야에서 압도적 빈도를 나타내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교통이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역사, 공정, 상인, 환경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들 5개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7%에 이른다. 그 밖에 문화, 시민, 재개발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 보상, 재원, 정치, 학술, 기타분야에서는 모두 20회 이하의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방송보도에서는 신문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보도 중 교통 분야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뒤를 공정, 상인, 환경, 역사가 잇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4%에 달한다. 따라서, 신문과 방송보도 공히 교통문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또한 교통, 공정, 상인, 환경, 역사가 가장 중요한 5대 보도 분야인 것도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문의 경우 총 보도빈도에서 역사가 2위를 차지한 반면 방송보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교통 분야의 비중이 방송보도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전문방송인 TBS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 3) 착공전후 주요범주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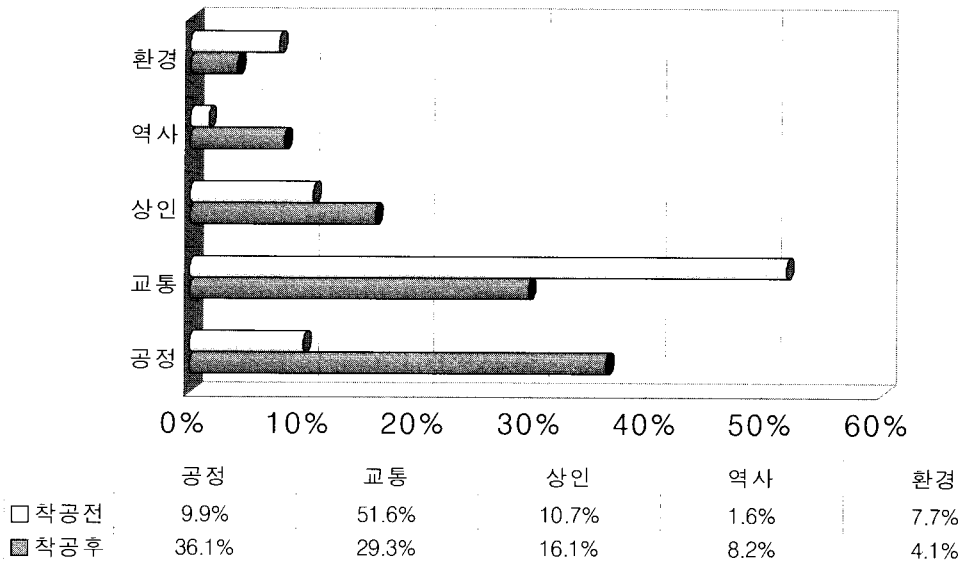
보도월별 빈도를 착공 이전(5~6월)과 이후(7~12월)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신문보도에 있어서, 교통과 환경의 경우는 착공이전에 가장 높은 보도횟수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나, 착공이후 공통적으로 보도횟수가 감소했다. 특히 교통의 경우에는 착공 이후에도 여전히 절대 빈도수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범주이긴 하나 착공 이전에 비해서는 보도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청계천 복원시작 이전에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를 했으나, 착공 이후에는 비교적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1〉 착공전후 주요 분야별 신문보도 비율



방송의 경우에도 교통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 착공 이후 보도빈도가 감소하였고, 특히 교통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신문과 방송 모두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쪽 모두에서 역사 분야에 대한 보도횟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착공이후 청계천 다리의 복원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전문가집단·시민단체간에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인과 공정에 대한 보도가 착공 이후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착공이후 상인 및 노점상의 이주·정착문제와 공정의 진행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2〉 착공전후 주요 분야별 방송보도 비율



## 2. 우호도 분석

### 1) 우호도별 보도빈도

해당 조사기간 동안 청계천사업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의 우호도와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각 보도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논조와 진의를 추론하였는데, 언론의 보도내용에 근거하여 각 보도마다 우호도 정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2에서 2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호도를 분석한 결과 신문과 방송에서 모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중립적인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신문과 라디오의 경우 비판적 보도(적극비판+비판)보다는 우호적 보도(적극찬성+찬성)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는 비판적 보도가 우호적 보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매체 중 가장 많은 보도빈도를 보이고 있는 라디오 방송 TBS가 서울시의 기관이므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 비우호적인 방송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데 많은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V와 라디오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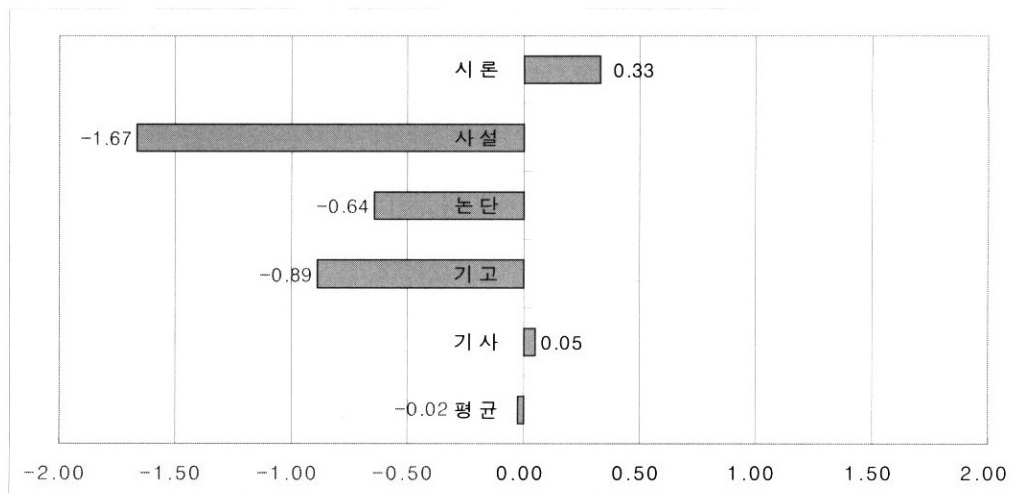
〈표 4〉 우호도별 보도빈도

단위: 회(%)

| 우호도 정도   | 적극비판       | 비 판        | 중 립        | 찬 성        | 적극찬성     |
|----------|------------|------------|------------|------------|----------|
| 점 수      | -2         | -1         | 0          | 1          | 2        |
| 신 문      | 94 (14.1)  | 111 (16.6) | 230 (34.4) | 182 (27.2) | 51 (7.6) |
| 라 디 오    | 29 (3.1)   | 65 (7.0)   | 568 (61.1) | 228 (24.5) | 40 (4.3) |
| TV       | 104 (23.7) | 69 (15.8)  | 180 (41.1) | 58 (13.2)  | 27 (6.2) |
| 라디오 + TV | 133 (9.7)  | 134 (9.8)  | 748 (54.7) | 286 (20.9) | 67 (4.9) |

신문의 경우 보도유형별로 분석하면, 보도유형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에서는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사의 경우 특정 성향을 띤 내용보다는 정보성 보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보도유형의 경우로 기고, 논단, 사실, 시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절대적 빈도가 낮아 실제로 우호도를 결론짓기는 힘들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비판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가 전체 우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를 포함한 우호도와 ‘기사’를 제외했을 경우의 우호도를 비교한 결과 ‘기사’ 유형 제외시의 평균우호도는 -0.87로 나타나 ‘기사’ 포함시 평균우호도인 -0.02와 비교할 때 비판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신문보도 유형별 우호도



## 2) 측정단위의 부호화

본 연구에서 우호도를 부호화하는데 있어서는 단순빈도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어를 기본 분석단위로 삼았다. 이 단어들은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어를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Krippendorff, 1980; Weber, 1985), 句는 단어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단위이고, 나아가 문장 또는 문단을 측정단위로 설정하면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안준호·김태식, 1993; 주재현, 2002). 단, 연구자의 주관이 개재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의 보도자료를 보면 하나의 보도에서 다른 범주의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단어 이외의 구나 문장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지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복수의 코더로 하여금 해당 보도를 분석하게 한 후 상호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식어나 강조어가 함께 사용되면 '적극'적 보도로 분류하였고 단순서술이나 향후 계획을 제시한 경우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동시에 제시된 경우는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표 5> 우호도별 어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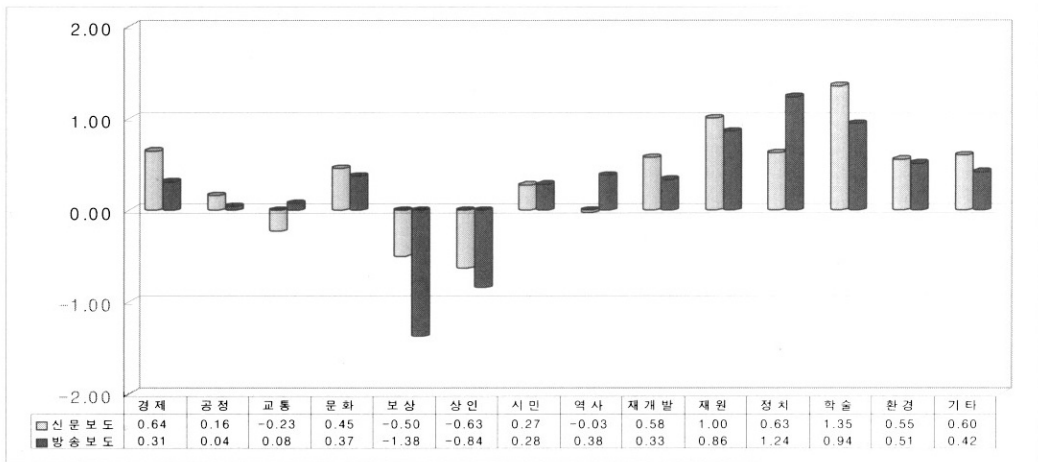
| 우호도  | 어휘군                                                                                                                          |
|------|------------------------------------------------------------------------------------------------------------------------------|
| 적극찬성 | 일류도시 환경·생태주의자 인간중심 아름다운 고무적인 상당히                                                                                             |
| 찬 성  | 맑은물 정취 효과 생태 녹지 도심냉각효과 편익 경제활성화 삶의질 인식변화 개선 개·보수 회복 가치 다행 합의 동참 특화개발 양성화 방안 정비 관광명소 무료주차 친환경적 쾌적한 살리다 갖추다 되찾다 가꾸다            |
| 중 립  | 밝혔다 있다 된다 예정이다 계획이다 방침이다 시행된다                                                                                                |
| 비 판  | 문제점 불편 피해 걸림돌 진통 논란 지적 안티 반대운동 반발 여파 혼란 혼잡 비상 불안한 불투명한 의심스러운 만만찮은 불가피한 시큰둥한 제한적 고스란히 불충분하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할 수밖에 없다 ~할 필요가 있다 |
| 적극비판 | 대란 악영향 충격 분통 기능상실 전략 지경 극심한 턱없이 심각한 몹시 가뜩이나 비난하다 향의집회 교통마비 시달리다                                                              |

## 3) 범주별 우호도

우호도를 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교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신문과 방송의 우호도 성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보상과 상인 분야에서는 신문과 방송 모두 음의 우호도를 나타냈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모두 양의 우호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통 분야의 경우 신문보

도에서는 음의 우호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방송에서는 약한 양의 우호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TBS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범주별 우호도 평균



#### 4) 월별 우호도

신문보도는 평균우호도가 -0.02로 사업에 대하여 중립 내지 매우 약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방송보도의 평균우호도는 신문보다 높은 +0.01로 사업에 대하여 중립 내지 매우 약한 긍정어조를 보이고 있어, 신문과 방송 모두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월별 우호도 변화는 신문과 방송 모두 음의 우호도와 양의 우호도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 정도가 모두 -1~1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표 6〉 월별 우호도 평균

| 보도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평균  |
|------|-------|------|-------|-------|-------|------|-------|-------|-------|
| 신문보도 | -0.26 | 0.22 | -0.10 | 0.09  | -0.08 | 0.22 | 0.25  | -0.43 | -0.02 |
| 방송보도 | -0.19 | 0.09 | 0.11  | -0.02 | 0.29  | 0.11 | -0.58 | -0.52 | 0.01  |

### 5) 통계적 검정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우호도 평균의 변화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신문보도와 방송보도 모두 6월, 7월, 9월, 11월, 12월을 기준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검증하였으나, 기준월을 전후하여 우호도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분석기간 중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언론의 우호도는 좋아지거나 나빠졌다고 말할 수 없다.

〈표 7〉 우호도 차이의 검정 (95%의 신뢰도)

| 구 분            | 신문보도   |        |        |        |       | 방송보도   |        |       |       |       |
|----------------|--------|--------|--------|--------|-------|--------|--------|-------|-------|-------|
|                | 6월     | 7월     | 9월     | 11월    | 12월   | 6월     | 7월     | 9월    | 11월   | 12월   |
| t값             | -1.570 | -0.984 | -1.619 | -1.223 | 0.883 | -0.689 | -0.097 | 0.283 | 0.888 | 0.723 |
| 유의확률(2-tailed) | 0.125  | 0.332  | 0.114  | 0.253  | 0.410 | 0.496  | 0.923  | 0.780 | 0.408 | 0.521 |

## IV. 심층분석

### 1. TBS 포함시와 제외시의 비교분석

#### 1) 빈도분석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서울시 소속의 TBS(교통방송)가 보도의 빈도나 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왔으므로, 과연 이러한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TBS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방송보도 중 TBS가 전체 보도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방송보도 전체와 TBS 제외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 방송보도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1,368회 중 TBS가 550회로 40.2%를 차지해 TBS의 보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TBS 포함시와 제외시 주제별 빈도

단위 : 회(%)

| 구 분             | 경제          | 공정            | 교통            | 문화          | 보상         | 상인            | 시민          | 역사            | 재개발         | 자원         | 정치          | 학술          | 환경          | 기타          | 계             |
|-----------------|-------------|---------------|---------------|-------------|------------|---------------|-------------|---------------|-------------|------------|-------------|-------------|-------------|-------------|---------------|
| 신문보도            | 14<br>(1.7) | 99<br>(12.0)  | 248<br>(30.0) | 53<br>(6.4) | 2<br>(0.2) | 97<br>(11.7)  | 44<br>(5.3) | 115<br>(13.9) | 40<br>(4.8) | 1<br>(0.1) | 8<br>(1.0)  | 17<br>(2.1) | 78<br>(9.4) | 10<br>(1.2) | 826<br>(100)  |
| TBS 포함한<br>방송보도 | 13<br>(0.8) | 365<br>(22.6) | 659<br>(40.8) | 43<br>(2.7) | 8<br>(0.5) | 215<br>(13.3) | 32<br>(2.0) | 77<br>(4.8)   | 54<br>(3.3) | 7<br>(0.4) | 17<br>(1.1) | 17<br>(1.1) | 96<br>(5.9) | 12<br>(0.7) | 1615<br>(100) |
| TBS 제외한<br>방송보도 | 4<br>(0.4)  | 246<br>(25.5) | 294<br>(30.5) | 30<br>(3.1) | 7<br>(0.7) | 181<br>(18.8) | 19<br>(2.0) | 54<br>(5.6)   | 44<br>(4.6) | 2<br>(0.2) | 10<br>(1.0) | 14<br>(1.5) | 49<br>(5.1) | 10<br>(1.0) | 964<br>(100)  |
| TBS             | 9<br>(1.4)  | 114<br>(18.3) | 363<br>(56.1) | 12<br>(2.0) | 1<br>(0.2) | 29<br>(5.2)   | 12<br>(2.0) | 16<br>(3.5)   | 10<br>(1.5) | 5<br>(0.8) | 7<br>(1.1)  | 3<br>(0.5)  | 44<br>(7.2) | 2<br>(0.3)  | 651<br>(100)  |

주: 하나의 보도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주제별 보도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TBS를 포함했을 경우나 제외했을 경우 모두 전체방송 빈도는 교통, 공정, 상인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TBS를 제외했을 때에는 TBS를 포함했을 때에 비하여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낮아지는 대신 공정, 상인, 역사 등 다른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환경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약간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문보도와 TBS를 제외한 방송보도를 비교해 보면 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비로소 거의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BS를 방송보도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교통분야의 보도비율이 높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TBS의 교통분야 보도빈도는 363회로 전체보도내용의 56.1%에 이르러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2) 우호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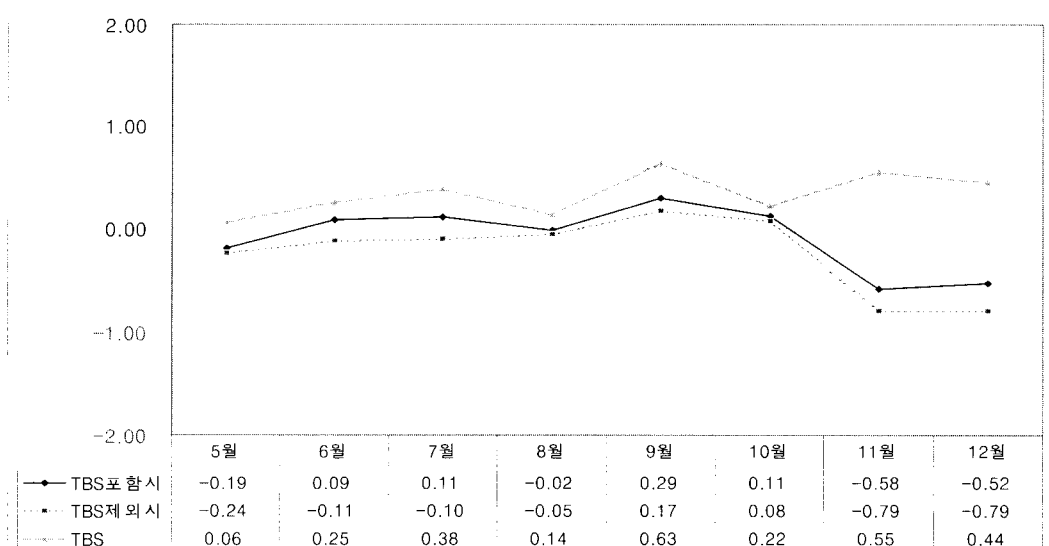
TBS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매우 우호적 보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방송보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TBS를 포함한 방송보도 전체의 우호도는 0.01로서, 이는 -0.02를 기록한 신문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서울시 유관기관인 TBS를 제외한 샘플을 사용하여 방송보도의 우호도를 분석해본 결과 -0.17의 우호도를 기록했다. 즉, 우호도가 양(+)에서 음(-)의 부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문의 경우보다도 더 낮은 우호정도를 보인 것이다.

〈표 9〉 TBS 포함시와 제외시의 평균우호도

| 구 분          | 보도빈도 (%)     | 평균우호도 |
|--------------|--------------|-------|
| 신문보도         | 668 (100%)   | -0.02 |
| TBS 포함한 방송보도 | 1,368 (100%) | +0.01 |
| TBS 제외한 방송보도 | 818 (59.8%)  | -0.17 |
| TBS          | 550 (40.2%)  | +0.30 |

신문보다 방송의 우호도가 높았던 것은 TBS가 기록하고 있는 평균 0.30의 수치에서 보다 시피 TBS가 높은 우호도를 기록함으로써 방송보도 전체의 우호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TBS를 포함한 방송전체의 수치만 보아서는 결과를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즉, TBS를 제외한 방송보도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신문보도보다 실제로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TBS라는 요소를 무시한 채로 보도의 우호도를 분석한다면 방송은 신문보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림 5〉와 같이 월별 우호도를 분석한 결과 TBS는 모두 양(+)의 우호도를 기록한 반면 TBS 제외시는 2003년 9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우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TBS를 제외한 방송보도의 우호도는 실제로 신문보도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TBS 보도자료로 인해 상쇄 혹은 희석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5〉 TBS 포함시와 제외시 방송보도 우호도 추이



## 2. 인터넷상의 여론분석

### 1) 빈도분석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와는 별도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을 분석하여 신문과 방송상의 보도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각종 시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 사이트 이외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책토론포방과 자유게시판,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 3개 시민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등록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분석하였다. 단, 논지가 애매한 글은 제외하였는데, 사업착공 직후인 2003년 7월에서 12월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하여 살펴본 자료 수는 총 60건에 불과해 일반인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단체별 게재 빈도

| 구 분 | 경실련 | 녹색연합 | 문화연대 | 서울시 | 계  |
|-----|-----|------|------|-----|----|
| 빈 도 | 6   | 3    | 3    | 48  | 60 |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은 환경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상인, 재개발, 교통, 역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범주 분포를 인터넷 분석기간과 동기간인 7월~12월의 신문·방송보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 결과, 양자간에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우선,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범주 가운데, 교통, 상인,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터넷과 신문·방송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신문과 방송(TBS 포함시와 제외시 모두)에서는 모두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나, 인터넷에서는 환경분야의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교통분야는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 둘째, 신문·방송보도에서는 공정에 관한 보도내용이 매우 많았으나, 인터넷에서는 그 성격상 언론보도가 아니므로 공정관련 내용은 매우 적다는 점, 셋째, 신문·방송보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부분인 상인과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상에서는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11〉 신문·방송보도와 인터넷의 범주별 빈도

단위 : 회(%)

| 구 분      | 경제          | 공정            | 교통            | 문화          | 보상         | 상인            | 시민          | 역사           | 재개발          | 재원         | 정치          | 학술          | 환경           | 기타          | 계            |
|----------|-------------|---------------|---------------|-------------|------------|---------------|-------------|--------------|--------------|------------|-------------|-------------|--------------|-------------|--------------|
| 신문<br>보도 | 12<br>(2.4) | 68<br>(13.3)  | 94<br>(18.4)  | 32<br>(6.3) | 5<br>(1.0) | 65<br>(12.7)  | 40<br>(7.8) | 82<br>(16.1) | 37<br>(7.3)  | 2<br>(0.4) | 10<br>(2.0) | 15<br>(3.0) | 38<br>(7.5)  | 10<br>(2.0) | 510<br>(100) |
| 방송<br>보도 | 8<br>(1.0)  | 283<br>(34.1) | 230<br>(27.7) | 24<br>(2.9) | -          | 126<br>(15.2) | 14<br>(1.7) | 64<br>(7.7)  | 34<br>(4.1)  | -          | -           | 13<br>(1.6) | 32<br>(3.9)  | 3<br>(0.4)  | 831<br>(100) |
| 인터넷      | -           | 3<br>(3.6)    | 8<br>(9.5)    | 1<br>(1.2)  | -          | 14<br>(16.7)  | 5<br>(6.0)  | 8<br>(9.5)   | 10<br>(11.9) | 1<br>(1.2) | 2<br>(2.4)  | -           | 30<br>(35.7) | 2<br>(2.4)  | 84<br>(100)  |

주: 하나의 보도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인터넷에서 환경, 상인, 재개발 등의 주제 빈도가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활동의 견제와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의견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각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주로 호소성의 글들이 투고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교통이나 공정 등의 분야보다는 상인이나 재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도수가 나타나는 점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2) 우호도 분석

전체 60건의 인터넷 자료의 평균우호도는 -0.05로 약한 음의 우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판의견(비판+적극비판)이 37%, 중립의견 27%, 찬성의견(찬성+적극찬성) 37%로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문과 방송에서는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비되는데, 인터넷의 경우는 중립적 의견보다는 한쪽에 치우치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TV의 경우 비판적 보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문과 라디오의 경우는 우호적인 보도가 더 많았던 것과도 대비되는데, 인터넷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해석은 얼핏 상충된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과 신문방송매체간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인터넷에 게시되는 개인의 의견 하나하나의 편파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 의견의 총합의 결과는 매우 균형 잡힌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판적 보도나 우호적 보도 중 한 쪽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측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물의 평균 우호도는 -0.05로, TBS를 제외한 방송보도(-0.17)와 신문보도(-0.02)의 범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분석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표 9〉 참조).

〈표 12〉 인터넷 자료 우호도별 빈도

단위 : 회(%)

| 구 분 | 적극비판  | 비 판      | 중 립      | 찬 성      | 적극찬성  | 계       |
|-----|-------|----------|----------|----------|-------|---------|
| 빈 도 | 9(15) | 13(21.7) | 16(26.7) | 16(26.7) | 6(10) | 60(100) |

## V. 결 론

내용분석은 정성적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방법론이다. 그러나 내용분석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매우 힘든 작업인데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가치개입이 가능하다는 내생적인 한계로 인해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매우 드물게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로써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신문보도자료와 방송보도자료, 게다가 인터넷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용분석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자료의 활용과 비교가 가능하다. 표본조사에 있어서 표본수를 늘려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분석에 있어서 복수의 자료를 분석한다면 대상 자료가 다양해져 질적 분석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는 보도가 아닌 일반여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라디오 방송의 경우 교통방송인 TBS의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자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분석대상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t-test를 실시하여 월별로 변화하는 우호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우호도상의 변화를 통계치로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내용분석방법이 가지는 객관성과 중립성의 약점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자료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인가, 찬성인가 하는 미묘한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연구자이다.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셋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호도를 체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단어와 문맥(문장)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였다. 우선, 샘플기사를 몇 개 추출하여 先실험(pre-test)을 통해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로 어휘표를 만들어 우호도 판별의 근거로 활용했다.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새롭게 나오는 단어들은 이후에 추가하였고 모두 하나의 표(〈표 5〉참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러한 어휘의 구분 및 정리 과정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우호도의 코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석단위의 결정에 있어서 단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문장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복수의 숙련된 연구자의 판단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최대한 높였다. 즉,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그 경로를 확연히 밝혀놓아야 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우호도 범위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범위를 세분화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우호도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2에서 +2까지의 5개의 범주만을 두었다. 예를 들어 -3에서 +3까지로 범위를 잡을 수도 있으나, -3과 -2간의 차이는 -2와 -1간의 차이만큼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척도를 단순화시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나태준(2003)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세 가지 한계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내용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단 나태준(2003)의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분석 연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Berg, 2001; 심재철 외, 2003; 한국언론학회, 2004), 분석방법 자체의 근본적 한계이다(Miles & Huberman, 1994). 즉, 질적 분석에 있어서 코더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의 내용을 판별 또는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따르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극찬성에서 적극비판까지 해당되는 어휘군을 〈표 5〉에서와 같이 밝힘으로써, 연구자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어휘가 각 우호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나태준(2003)의 연구에 비하여, 단지 단어가 아닌 문맥을 포함시켜 전체적 맥락의 분석을 강조하였으며, 기준어휘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차별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단일자료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소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나태준(2003)은 일간신문의 보도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방송보도 역시 분석하고 있으며, 그를 다시 TV와 라디오로 나누어 세부분석하였고, 라디오의 경우 서울시 기관인 TBS를 분리하여 심층분석하였고 그 결과 빈도나 우호도에 있어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언론동향과 아울러, 인터넷 콘텐츠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관련내용의 분석은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중립적 언론보도의 내용이 아닌 개인의 감정과 판단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점과, 관련된 항목이 TV 등 중립적 보도매체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대안적·보완적 소스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의 주요 발견점은, 방송과 신문보도에 있어 전체적 추이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착공일 전후인 6월과 7월에 집중적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빈도가 낮아진다는 점, 둘째, <그림 1>, <그림 2>,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보도분야별 비율의 증감추이는 방송과 신문보도에 있어 매우 비슷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신문과 방송 공히 한 건의 보도에서 복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넷째, 교통분야의 보도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보도빈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교통, 공정, 상인, 환경, 역사분야가 가장 중요한 보도분야이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각 분야별 순위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공정과 교통의 경우는 특히 서울시 소속기관이 T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TBS에서는 광고와 홍보성격의 보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모두 중립적인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TV보다는 신문과 라디오에서 보다 우호적 보도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내용분석방법을 구사하는데 구태여 신문과 방송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분석의 삼각체제화(triangulation)라는 분석재확인 효과와 아울러, 신문과 방송의 미디어 성격상의 근본적 차이,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호도나 보도빈도가 나타내는 차이 등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각 연구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방송과 신문의 우호도의 차이는 TBS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심층분석의 필요성을 가져왔고, 그 결과 TBS의 보도에 의해 보도빈도나 우호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소스를 활용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 및 방송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의 비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은 내용분석 방법론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으므로, 청계천 복원사업내용에 대해 밝히고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례의 분석에 대한 공헌은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자 방법론에 초점을 둔 논문의 일반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조(construct)된 내용분석상의 범주, 키워드, 어휘군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례의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며 강조되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내용분석 연구방법론 강화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엄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와 대응방안의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보완책을 응용하여 적합한 주제에 적용한다면 내용분석방법론은 기존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의 교량 역할을 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춘식. (1998). <정치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미·일 정치광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나태준. (2003).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49-167.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2003).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3): 95-124.
- 안준호·김태식. (1993). “대통령 취임연설문 내용분석”. 김웅진 외(편). <정치학조사방법: 재미있는 퍼즐풀기>. 서울: 명지사.
- 이상경. (2001). “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주택학회 발표자료집.
- 이상경·신우진·정창무 (2001). “내용분석을 이용한 재건축 사업 관련 주체들간 갈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6): 99-111.
- 이지훈. (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 정익재·정창무 (1996).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신문사설 내용분석”. <한국행정학보>. 30(1): 93-112.
- 주재현. (2002).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정부행정>. 3: 29-55.
- 한국언론학회. (2004).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 Babbie, E.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Berelson, T.L. (1952). *Content Analysis*. New York: Hafner.
- Berg, B. L. (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llyn and Bacon: Boston.
- Coffey, Daniel. (2005). “Measuring Gubernatorial Ideology: A Content Analysis of State of the State Speeches”. *State Politics and Policy Quarterly*. 5(1): 88-103.
- Dowler, Kenneth. (2004). “Comparing American and Canadian Local Television Crime Stories: A Content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46(5): 573-597.
- Joo, Jaehyun. (1997).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 Victi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Krippendorff, Klaus.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London: Sage.

- Krippendorff, Klaus. (2004).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Recommend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3): 411-433.
- Lombard, M., et al. (2002). "Content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469-472.
- Miles, M.B. & A.M. Huberman.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Sage.
- Monk-Turner, Elizabeth, et al. (2004). "A Content Analysis of Violence in American War Mov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4(1): 1-11.
- Robson, Colin. (1993). *Real World Research: A Resource for Social Scientists and Practitioner-Researchers*. Oxford, U.K.: Blackwell.
- Singleton, Jr., Royce, Bruce C. Straits and Margaret Miller Straits, (1993). *Approaches to Social Research*.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Robert Philip. (1985). *Basic Content Analysis*. London: Sage.

---

\* 나 태 준(羅泰俊):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인디애나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공관리, 환경정책이 전공분야이며, 주요논문과 저서로는 The Shadow of Managed Competition(2002),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직신뢰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2003), 서울시 공무원의 인트라넷 활용에 관한 연구(2003), 새 술을 헌 포대에?: 서울시의 전략기획 도입에 관한 연구(2004), 프로젝트 청계천: 갈등관리전략(2005) 등이 있다(E-mail: tjlah@yonsei.ac.kr).

## © Policy Analysis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Case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T. J. Lah

Content analysis is supposed be a rational and systematic way of integrating individual datum. However, the methodology is bounded with inherent limits that it is a transformation of qualitative data into quantitative display. Analyzing the newspaper/broadcasting articles on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ways to overcome such limits. These methodological improvement adopted in the paper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multiple sources of data will enhance the validity of a study by enabling comparison between analyses that are based on different data sources. Second, although the data set is constructed by qualitative judgement, one can support the results quantitatively by testing the results statistically. Third, one may use either word counting or context interpretation, or both to enhance the research validity. Fourth, since researchers have cognitive limitations, simplifying judgement scale helps improving methodological robustness. Adopting the abovementioned complements, content analysis may stand on a firmer methodological groun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Key-words: Content Analysis,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Multimedia  
Sources